

4. 11月中 體感物價와 展望¹⁾

- (動向) 11월중 體感物價는 指數物價의 保合에도 불구하고 10월에 비해 다소 不安한 樣相을 보였음 (응답자의 61.3%가 올랐다고 표시)
- (原因) - 公共料金과 個人서비스 料金, 外食費 등 서비스 料金の 상승때문
- 11월중 指數物價가 10월의 下落勢(-0.5%)에서 保合勢로의 反轉에 따른 心理的인 要因도 反映된 것으로 평가됨
- (展望) 向後 3개월간 體感物價는 서비스 요금과 식료품비, 교육비 상승 등으로 더욱 不安해질 것으로 예상됨 (응답자의 85%가 오를 것으로 전망)
- (示唆點) 조사 표본 확대와 가중치 반영도의 제고, 대국민 경제 교육 강화 등 指數 編制上의 問題點과 소비자 인식상의 心理的인 問題點을 시정하여 지수물가와 체감물가간의 乖離를 最少化시켜야 할 것임

11月中 體感物價는 응답자의 61.3%가 올랐다고 答변함으로써 10월에 비해 다소 不安하였음

- (動向) 11월중 體感物價는 10월에 비해 다소 不安
- 11월중 올랐다고 응답한 경우(61.3%)는 비슷하거나 내렸다고 응답한 경우(38.8%)보다 많았을 뿐 아니라 10월중 올랐다고 응답한 경우(49.5%)보다 많은 수준임
· 소득계층별로는 도시가계 월평균 소득(2/4분기 180만 원) 주변의 중간계층(101~300만 원)의 체감물가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됨

(만원)	100 이하	101~200	201~300	301~400	평균
안정	30.8%	41.9%	43.1%	30.4%	38.8%
불안	69.1%	58.1%	56.9%	69.5%	61.3%

주 : 안정은 10월 대비 내렸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한 경우이고, 불안은 상승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임

- 지역별로는 大都市일수록 체감물가가 安定되었음
· 올랐다고 응답한 경우가 6대 도시는 60.1%, 중소도시는 61.0%, 읍면 지역은 65.4%임
· 최근 대도시에 늘어난 대형 할인업체들의 등장도 대도시의 체감물가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

- (原因) 서비스 料金 上昇과 心理的인 要因의 反映 때문
- 공공요금(교통요금과 우편요금 등)과 개인서비스 요

1) 1995년 11월 21일~11월 22일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,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(95% 신뢰 수준에서 최대 오차 한계는 ±3.1%)

11월중 體感物價의
上昇은 公共料金과
個人서비스 등 서
비스 요금의 상승,
11월중 지수물가의
下落勢 멈춤에 따
른 心理的 要因의
反映 등에 기인함

금(이미용료, 목욕료 등), 생필품용 공산품(라면 등),
외식비 가격 등의 상승이 두드러졌음

- 올랐다고 응답한 항목중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
요금은 72.2%로 가장 높았으며, 10월 대비 격차
(22.4%p)도 가장 컸음. 이 부문은 지수물가로도 전
월비 각각 0.3%, 0.4%, 94년말 대비 8.3%, 9.4%나
상승함으로써 금년도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했음

- 11월중 체감물가의 상승세는 지수물가가 10월중 하락
세(전월비 -0.5%)에서 11월에는 보합세로 반전되면서
心理的으로는 相對的으로 상승한 것처럼 작용한 것도
한 요인으로 지적됨 (1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
년말 대비 4.2%로 86년 이후 9년만에 最低值 記錄)

- 이로 인해 家計 負擔 順位가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
요금(1위), 의복 및 생활잡비(3위)의 경우 10월 대비
각각 두칸씩 뛰어오른 반면, 식료품비와 주거비의 부
담은 다소 가벼워졌음

- 年齡別, 學生 子女의 有無別로 실제 가계 생활에서
느끼는 부담은 상이함. 20대는 의복 및 생활잡비,
30~40대는 教育費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

- 교육비 부담은 무자녀인 경우에는 18.3%에서 학생
1자녀인 경우에 40.0%, 학생 2자녀인 경우에는
46.1%로 급등하였음

○ (展望) 向後 3개월간 體感物價는 더욱 不安해질 것
으로 예상됨 (응답자의 85%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)

- 서비스 요금과 식료품비, 교육비의 상승을 우려함

- 公共料金は 이미 예정된 것(12월 10일 의료보험수
가 11.8%, 96년초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봉투값
등)은 물론, 연말 연시에 대폭적인 인상을 단행했던
過去 慣行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

- 個人서비스 料金도 공공요금 인상에의 편승과 총선
등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 반영 등으로 지속적인 물가
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됨

年末 年始의 체감
물가는 서비스요금
과 식료품비, 교육
비 등의 상승 부담
으로 더욱 不安해
질 展望임

지수물가와 체감물가간의 乖離 現狀을 완전히 解消하기는 어려움

그러나, 調査 過程 및 指數 編制上의 問題點을 最少化시키는 한편, 대국민 경제 교육 강화와 건전 소비 문화 정착의 유도로 消費者 認識上의 心理的인 要因을 안정시켜 兩者間의 隔差를 최소화시킬 수는 있을 것임

- 食料品費는 국내 쌀값 급등과 국제 곡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가공 식료품 가격의 인상 전망으로, 敎育費는 96년초 등록금(사립대 15% 예정)과 학용품값 인상 우려에 따른 것임
- 반면, 耐久消費財 價格은 가격 파괴 현상의 확산과 병행수입제도의 허용으로, 주거비는 비자금 한파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 등으로 각각 체감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
- (示唆點) 조사 標本의 擴大와 월별 가중치 도입, 건전 소비 문화 정착과 對國民 經濟 敎育 強化 등으로 兩物價間의 隔差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임
- 지수물가와 체감물가간의 격차는 지수 편제상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 등으로 兩者間의 乖離가 不可避함
 - 지수물가는 특정 기준 연도의 대표 상품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작성되는 반면, 체감물가는 성별, 연령별, 소득계층별 등 각기 상이한 개별 소비자가 그때 그때 구입한 일부 특정 품목에 대한 가격 변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소 주관적임
 - 물가지수가 5년마다 개편되기 때문에 기준 연도에서 멀어질수록, 소비구조의 변동이 급격히 일어날수록 가중치의 반영이 왜곡되고 신제품이 많이 생겨날수록 지수물가와 체감물가간의 괴리가 확대됨
 - 심리적으로도 소비 생활의 고급화, 가구 구성원의 증가, 상품의 품질 향상에 따른 지출 증가 등을 물가 상승에 따른 지출 증가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음
- 그러나 조사 표본의 확대, 소득 및 소비지출 변화와 신제품 출현에 따른 가중치 변화의 반영도 제고, 현행 지수물가 조사에서 제외된 주택 매매가의 반영 등 調査 過程과 指數 編制上의 問題點을 축소시키는 한편 건전 소비 문화 정착과 대국민 경제 교육의 강화를 통해 心理的인 要因을 안정시켜 양자간의 격차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임 (홍순직)